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: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과장(2110-5481), 문상민 팀장(4879), 김종연 사무관(4881)

"원전 품질서류 재검증을 위한 제3기관 선정"

-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영국 Lloyd's Register社 선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국내 원전 분야 품질서류(시험성적서, 기기검증서 등) 재검증 업무를 수행할 **제3기관으로 Lloyd's Register**(英)(이하 'Lloyd')**를 선정**하였음을 밝힘

○ 이는 지난 6.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「**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**」 중에서 **원전 품질서류의 위조를 방지**하고, **위조시 이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**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한번 더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사안임

□ 산업부는 **제3기관 선정을 위해** 원전 시험·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**기관을 대상**으로 **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**하였음(8.30~9.17)

○ 입찰에 **총 3개의 해외기관이 참여**(국내기관은 입찰참여 無),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**기술성 평가와 가격평가**를 거쳐 합계 최고 점수를 획득한 **Lloyd社를 선정**함(10.1)

○ Lloyd社는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으로 특히 **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을 보유, 전세계 1,100여개 업체에 인증· 검사 서비스를 제공**하고 있는 **원전검사 전문 기관**임
(한국에서도 원전 공인검사 업무 수행중)

* Lloyd社 개요 < 첨부1 > 참조

□ 금번에 선정된 Lloyd社는 **한국지사를 중심**으로 **국내외 원전 분야 시험·검증·검사 전문인력**을 확보하여 **제3기관 전담팀**을 구성

○ Lloyd社의 **참여인력 전원**(총 34명)**은** 향후 2년간 **국내 상주**하면서 제3기관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계획임

□ 산업부는 제3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업무 수행 준비 과정(사무실, 인력 배치 등)을 거쳐 **10월 중순부터 앞으로 2년간**('13.10~'15.10) 국내원전 **품질서류 재검증**을 실시할 계획임

* 2년후 원전업계 품질관리능력 향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3기관 재검증 지속여부 판단

○ 동 기간동안 제3기관은 품질서류 대조검사(원본-사본 대조)를 통해 ①**품질서류 위조여부를 확인**하고, 제작사·시험기관이 실시하는 ②**주요 시험과정에 직접 입회**하여 시험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며,

○ ③재검증 과정에서 **위조서류를 발견할 경우** 정부(산업부, 원안위 등) 및 관계기관(한수원 등)에 보고·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

* 제3기관 세부 업무내용 < 첨부2 > 참조

□ 앞으로 산업부는 제3기관이 **위조 서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의뢰, 원안위 통보**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

○ 아울러 제3기관 검증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**원전분야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**해 나갈 예정이며, 이를 통해 필요한 **절차적 보완은 계속**해 나갈 계획임

□ 한편 정부는 상기 제3기관의 검증과 병행하여 국내 시험기관 및 원전산업계의 품질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○ **국내 기기검증 기관**은 **전문인증관리제도**를 통해 검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(원자력안전위원회),

○ **한수원·한전기술·제작사**는 **자체 품질검증 기능을 강화**하고 **위조 방지 책임을 명확히 부여**하여 원전업계 전반의 품질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임(산업통상자원부)

< 참고 > 일부 언론의 해외 제3기관의 재검증시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

⇒ **해외기관의 제3기관 재검증에 따른 기술유출 가능성은 없음**

① 제3기관은 이미 공개된 원전 설계기준에 따른 **시험·검증 "결과"의 위변조만 확인**하므로 **유출될 기술내용 자체가 제공되지 않음**

* 원전 주요기기의 제작 "과정"에 해당하는 특정기술 자체는 제3기관에 제공되지 않음

② Lloyd社는 오랜 전통의 세계적인 검사기관으로 **검사·검증 과정 및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**는 **기관 공신력의 핵심**

* 1970년대 이후 3~40년간 미국, 유럽 등 주요 원전국 공인검사 수행 중

③ 제3기관과의 업무계약에 철저한 자료 보안·관리를 명시함으로써, **국내 원전정보 해외반출 자체를 원천 금지**함

* 제3기관 계약시 모든 제공서류에 대한 보안각서 작성, 정기 보안감사 등 명시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상민 팀장(☎ 02-2110-4879), 김종연 사무관(4881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 Lloyd社 개요

□ 기관 개요

○ **(설립)** 선박 업계의 정보교환, 선박거래 등을 위해 **1760년**, **영국에서 최초 설립된 비영리 기관**

○ **(규모)** 전 세계 230개국에 7,800명 근무, 한국지사 운영

○ **(주요업무)** 원자력을 포함하여 선박, 해양, 에너지,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**전 세계 각국에서 인증, 검사, 신뢰성평가 등을 수행**

- 현재 50여개 국가에서 기기에 관한 법정검사 자격 부여

□ 원전 분야 전문성

○ **1973**, **ASME**(미국기계기술자협회) **공인검사기관으로 서비스 시작**

○ 현재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 보유, 전 세계 1,100여개 업체에 인증, 검사 서비스 제공

* **전 세계 ASME 공인검사 분야 약 30% 점유**

□ 국내 원전 관련 업무 내역

○ 한국에서 원전 제작 공인검사 수행

- ASME 공인검사 : 국내 110여개 비원자력 및 원자력 업체 공인검사 수행

- KEPIC(한국 전력산업기술기준) 공인검사: 국내 40여개 원자력 업체 공인검사 수행

○ Lloyd 한국지사에서 원전 분야에 30명의 공인검사원, 감독원 보유

참고 2 제3기관 세부 업무내역

◈ 원전 품질관리 全 과정상 **품질서류(EQ, CGID, QVD) 진위여부 확인, 제작사·시험기관 입회 검사**

□ **납품과정상 품질서류 대조 검사**

○ (대상) **EQ, CGID 서류 전체, QVD 서류 샘플링**

* EQ, CGID는 서류 위조가 원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량 재검증, QVD는 재검증 물량이 방대하며 위조가 사고로 연계될 가능성 없음(고장사유)

- QVD 샘플링은 특히 위조가 빈발한 분야(재료시험성적서 등)에 집중

○ (방법) 시험기관의 원본과 제작사의 사본을 대조하여 **1차 확인**, 원본-사본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**Raw Data 확인**

○ (조치) 위조 의심서류 판단시 제3기관은 **품질책임기관**(한수원 등) 및 **원자력안전규제기관**(KINS 등)에 통보

□ **제작사·시험기관 입회 검사**

○ (대상) **국내 EQ 및 CGID 시험 전체, QVD 시험 샘플링**

○ (방법) 핵심 안전설비의 중요 시험은 **필수 입회검사**(Hold Points), 기타 시험은 **선택적 입회검사**(Witness Points)

○ (조치) 입회검사 결과는 제3기관이 **품질책임기관**(한수원 등)에 **직접 통보**하고, 한수원 등은 **추후 납품시 제출서류와 대조** 확인